



중국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

이소양 연구원

■ 최근 중국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제혜택을 골자로 한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.

- 2012년 중국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개인 직접 부담 비중은 34.4%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(12.0%), 영국(9.0%), 캐나다(15.0%)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음.
- 중국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사적 건강보험 부담 비중은 2%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.
 - 2012년 한국 전체 의료비 지출 대비 사적 건강보험 부담 비중은 5.5%임.
- 2015년 5월 중국은 사적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개인에게 연간 2,400위안 한도에서 소득세 세전 공제를 제공하기로 결정함.
 - 동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베이징, 상하이, 충칭, 톈진 등 4개 직할시와 각 성이나 자치구의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나서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정임.
- 한편, 중국은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적 의료보험 보험금 인상, 공공병원 약품 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.

■ 중국 사적 건강보험은 생명보험 대비 시장규모가 작은 편이나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 및 세제혜택 제공에 힘입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CIRC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)에 따르면 사적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1999년 4억 위안에서 매년 28.6%씩 성장해 2014년 1,587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나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.2%에 불과함.
 - 중국 금융데이터 분석 업체인 WIND에 따르면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독일, 네덜란드의 사적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.0%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.
- 2012년 중국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1978년 3.0%에서 5.4%로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(16.9%), 영국(9.3%), 캐나다(10.9%)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- 중국의 이번 개인 대상 세제혜택은 앞서 2009년 6월 발표된 기업 대상 세제혜택보다 사적 건강보험 수요 확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사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 - 앞서 2009년 6월 중국은 직원을 위해 사적 의료보험을 가입해 주는 기업에게 법인세 세전 공제를 제공했으나 공제 비율이 높지 않고 처리 절차가 복잡해 사적 의료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.
 - 전문가들은 사적 건강보험 수입보험료가 2020년까지 1조 위안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함.
- 중국 사적 건강보험시장은 대형 보험회사 및 전문 건강보험회사에 지배되고 있으나 건강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계 보험회사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2013년 중국 생보사 상위 4사인 China Life, Ping An Life, New China Life, CIFC Life, 최대 손보사인 PICC P&C와 전문 건강보험회사인 PICC Health는 건강보험시장에서 67.9%를 차지하고 있음.¹⁾
 - 또한 China Life, Ping An Life, New China Life는 건강보험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.
 - 2013년 11월 New China Life는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2015년 4월 Ping An Life는 건강관리 관련 실시간 문의가 가능한 모바일 앱을 출시함.
 - China Life는 2015년 초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Town Health를 인수했으며 4월 부동산업체인 Beijing Xingpai Group와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함.
 - 한편, 중국계 중소형 보험회사 Sunshine Life는 건강보험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인터넷채널과 건강보험을 결합한 보험상품을 출시했으며 의료기관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.
 - 전문가들은 중국 건강보험시장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며 외국계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영업을 강화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함.
 - 일반 생명보험과 달리 건강보험 보험료가 질병 발생율과 질병별 평균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선진국 보험시장에서 경영 노하우를 축적해 온 외국계 보험회사는 중국계 보험회사보다 건강보험 상품개발 및 위험통제 능력이 더 높음.

(CIRC 등)

1) CIRC가 발표한 『보험회사 업무 범위 관리 방법』에 따르면 중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건강보험 영업을 할 수 있음. 2013년 중국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1,123억 위안을 기록함.